

다주택자 내년부터 돈 더 못빌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계부채 대책 추석 후 발표 기존대출 포함 DTI 30%...다주택자 '갭 투자' 차단 효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23일부터 다주택자 DTI 한도가 30%로 낮춰진 데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더 강화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쓴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분모가 커지고, 임금피크나 퇴직을 앞둔 경우 분모가 작아진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DTI가 이미 3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대출로 다주택자가 되는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경기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각각의 만기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DSR은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신 DTI는 2019년 DSR 전면 시행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신 DTI와 DSR을 도입하면 주택구매자 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TI나 DSR가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거나,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유럽 공략 28종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가



현대·기아차는 12일 개막하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와 '스토닉', 해치백 '프로씨드' 콘셉트카(양산 전 개발단계 모델) 등 28종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메세에서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서 각각 2000㎡와 2421㎡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코나와 i30 패스트백을 메인 모델로 내놓고, 고성능·모터스포츠용 'N' 시리즈 모델로 i30N, i30N 24h 랠리카, i30N TCR 랠리카, i20 WRC 랠리카 등을 전시한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일렉트릭(전기차) 등 3가지 친환경 차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i30N 탑재 고성능 엔진 등 현대차 기술을 과시하는 전시물도 선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모터쇼에서 i30 계열 4종, 코나 등 유럽 전략 차종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메인 전시 모델은 소형SUV 스토닉과 쏘렌토 부분변경 모델, 모닝(현 지명 피칸도) X-라인 등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프로씨드 콘셉트카가 세계 최초, 스토닉이 유럽 최초로 공개된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내일 자구안 제출...박삼구 회장 카드는?

유상증자·대우건설 지분 매각·중국 법인 매각 등 제시 전망 채권단이 자구안 거부시 워크아웃·P플랜 도입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 정상화 자구계획 제출 시한이 10일로 이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5일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금호타이어 경영진에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자구계획을 내놓지 않거나, 제출된 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 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절차가 나설 것이라고 밝혀 박 회장의 자구안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우선 과거 채권단에 제시했던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주변에선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지난 7월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땀 박 회장이든 계열사든 2000억원의 자금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매각 방해' 논란을 야기했다.

박 회장은 20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20%를 확보, 금호타이어 재매각에 나서자 채권단에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알박기'로 비칠 수 있어 채권단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회장은 또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4.4%를 매각하는 내용을 자구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지분 4.4%의 가치는 약 1300억원으로 금호타이어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될 전

망이다.

여기에 적자를 내는 중국 공장 매각 계획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6일에도 "중국 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쳤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더블스타와 지프로 등 금호타이어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 기업과 접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채권단이 박 회장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금호타이어는 또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최악에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도입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P플랜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구조조정 방안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유상증자와 대우건설 지분 매각, 중국 법인 매각 등을 자구책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연합뉴스

광주은행 서울서 '광주화루' 수상기념전

29일까지 성곡미술관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주최한 '제1회 광주화루'에서 작가상을 수상한 유근택의 기념전을 서울 성곡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9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제1회 광주화루' 작가상 수상기념

전 '시간을 건다'를 주제로 유근택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현재 작품까지 지난 30여 년간 쉽 없이 정진해온 작품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다.

김한 은행장은 "광주화루를 개최한 것은 한국화 작가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한국화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다"며 "광주화루가

한국화 부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화루'는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가 또는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이다. 지난 4월에 작가상 수상자와 3명의 공모전 당선자를 발표하고 공모전 최종심사에 오른 10명의 작품을 보여주는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했다. /최재호기자 lion@



삼성전자 모델이 5도어 냉장고 H9000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냉기 손실 줄인 냉장고 출시

'H9000' 냉장 60% ↓...IoT 도입 '패밀리허브' 라인도

삼성전자는 11일 기존의 양면형 냉장고(좌냉·우냉)를 필요할 곳만 여단을 수 있도록 '4분할 5도어 냉장고'로 개선했다. 새로운 타입의 냉장고 'H9000'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을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보관하면서 필요한 곳만 여단을 수 있도록 해 식품의 신선함, 에너지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최근 가정용 간편식·반조리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 식자재뿐 아니라 다양한 냉장·냉동식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려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냉장실의 경우 외부에는 상·하로 구분된 쇼케이스가, 내부에는 인케이스 도어가 각각 있는 3도어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삼성 냉장고만의 장점인 쇼케이스를 적용해 수납 편리성을 극대화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온도나 위치, 구조에 따라 모두 7개 존으로 나뉘어 분리 수납이 쉽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곳만 도어를 열어 식품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양면형 냉

장고와 비교해 냉장실은 약 60%, 냉동실은 57%까지 냉기 손실을 줄여준다고 한다.

H9000 모델 중에는 음성 인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도입된 '패밀리허브' 라인업도 있다.

패밀리허브에는 11일부터 '우리음 IoT' '뱅크'이 탑재돼 ▲보유계좌 잔액 조회 ▲이탈의 자동이체일, 예금·대출 만기일, 이자납입일 등을 보여주는 금융 캘린더 ▲실시간 환율 조회 등을 주방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7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0	17	18	21	29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362,644,907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355,714			49	
3	5개 숫자일치	1,415,984			2,054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013	
5	3개 숫자일치	5,000			1,680,976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